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4호 【루게 제24697호】 주제 103(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찾았다.

우리 당을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인민대중속에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물결이 만수대언덕으로 흐르고 흘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만,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군중들은 우리 당을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찾았다. 우리 당을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인민대중속에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물결이 만수대언덕으로 흐르고 흘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만,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군중들은 우리 당을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절세위인들의 통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통상과 태상상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상과 태상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 군대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승

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용유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의 통일단결을 천백배로 다지며 강성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선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백승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조선로동당

국제사회계가 격찬

회세의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령도밑에 백승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대중적당으로,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세련되고 로숙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이겨내면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왔다.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한치의 드림도 없이 확고히 계승되고 있다. 영구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제사상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바치신다. 조선로동당은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반제반미투쟁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없이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며라 사회주의강성조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인디아신문 《투어리즘 이터》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기약해준 력사적인 사변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위원장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대령의 순결성을 고수하시고 조선로동당을 불멸의 당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시였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당이 있어

조선은 자기 선택한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기네신문 《호로야》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상과 령도, 덕망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그대로서인 김정은각각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구현해나가고 계신다. 가장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 뜨거운 인간애와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펼치시며 인민과 교락을 같이하시는 진정한 인민적 령도자로서의 김정은각각의 품모에 만민이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현대정치가로서의 완벽한 품격과 자질, 세계적이며 세기적인 안목을 지니신 김정은각각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력전을 진두지휘하고계신다. 그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여세를 나아갈것이다.

로씨야신문 《나흐도즈스키 라보치》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는 김정은동지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그이께서 수놓아가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은 공장과 농촌, 마을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방방곡곡에 깔리어 펼쳐지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일념에 넘쳐있다.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당이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정당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에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쳐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게재,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기》를 1일 영구선군정치연구 협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작 《선군시대》에 맞는 사회주의적생활문화

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로씨야 나흐도르 포르마출판사에서 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14 폐막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지난 1일 평양에서 개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폐막되었다. 김일성경기장과 평양체육관, 평양시의 여러곳에서 련일 성황을 이루며 벌어진 도대항군중체육대회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전투적기백과 광만을 북돋아주었다. 10일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청소년녀자축구, 녀자농구, 녀자배구, 녀 1500m달리기, 윗놀이, 공안고고이어린이 손목잡고달리기, 물고기코베고달리기, 장에물극복달리기, 씨름, 바줄당기기 결승경기가 있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봉태동지, 박도춘동지, 강석주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도대항임비서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 련관단위 책임일군들, 각 도(직할시) 응원단성원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경기들을 함께 보았다. 또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치고 돌아온 선수, 감독들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경기들을 관람하였다. 청소년녀자축구편명전에서 팀의 전술과 단결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며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평양시팀이 함경북도팀을 2:0으로 이기고 단연 1위를 하였다. 역습속공과 대인방어, 강한 처널기와 막기 등으로 경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평양시팀이 상대팀들을 누르고 녀자농구, 녀자배구경기에서도 우승

하였다. 황해남도팀이 룡상, 장에물극복달리기경기에서, 라선시팀이 윗놀이경기에서 각각 1등을 하였다. 강원도팀과 평양시팀이 공안고고이어린이손목잡고달리기, 물고기코베고달리기에서 각각 우승하였다.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바줄당기기 결승경기가 장내를 들뜨게 하였다. 노래 《조국찬가》의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체육대회상징기발이 내리워졌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대중의 드높은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강성국가건설로 들끓는 온 나라에 진전하고 활기에 넘친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종합순위가 발표되고 시상식이 있었다. 평양시가 1등으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순회우승컵을 쟁취하였다. 2등은 강원도, 3등 함경북도, 4등 평안북도, 5등 황해남도, 6등 평안남도, 7등 함경남도, 8등 남포시, 9등 라선시, 10등 자강도, 11등 황해북도, 12등은 량강도가 하였다. 노래 《조국찬가》의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체육대회상징기발이 내리워졌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대중의 드높은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강성국가건설로 들끓는 온 나라에 진전하고 활기에 넘친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 각하

나는 친선적인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국가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께서는 친선적인 귀국과 귀국인민의 목표와 지향을 실현하시었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강철을 칼집내고 동부부드름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주변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정의의 위업실현에 관심을 돌려주시고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지지연대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우리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친선과 연대성의 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바스

2014년 10월 10일

리발라르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 각하께

제1비서동지각하
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기념일인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적도기내 민주당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오비앙 그레마 트바쑤고대통령과 그리고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지최들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최들은 각하께서 이 역사의 날을 성대히 경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적도기내민주당 총비서
헤로니모 오싸 오싸 에쑤로

2014년 10월 3일

말라보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 각하께

각하
저는 경사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을 대표하여 그리고 저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17년전인 1997년 10월 8일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것과 2010년 9월 28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추대되신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조선로동당은 각하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영도밑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앞으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조선을 세계적인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영도하시는 길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두 당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관계를 보다 더 강화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아울러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을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와 동지적인사를 드립니다.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케이. 피. 샤르마 울리

2014년 10월 6일

까뜨만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축전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영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찬양한다고 지적하였다.

축전은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의 유대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기를 바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형제적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번영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일화

새로 생긴 67개의 좌석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11월 어느날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 하시던 때에 있는 일이다. 이날 삼지연군문화회관을 찾아주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회관의 관리실태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었다.

군예술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 영화 상영은 어떻게 하는가도 물어주시고 회관전경의 조형상태도 일일이 돌아다니시며 회관의 관람실로 들어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운데로 중간쯤에 이르시어 스텝없이 관람실의 한 자리에 앉으시었다.

관람자들이 앉곤 하는 평범한 좌석에 허물없이 앉으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도와 군의 일군들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해 하고있는데 관람실을 둘러보시던 원수님께서 문득 가운데로로 왜 이렇게 넓게 앉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님께서도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인차 대답할리치 못하고 머뭇거렸다. 회관관람실의 널찍한 가운데로로는 공연관람때마다 책상과 의자들을 들여놓고 일군들을 앉히기 위하여 남겨둔 공간이었던 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짐작이 가신듯 웃음 어린 어조로 이곳에서는 탁구도 칠수 있겠다. 유모아우리로 말씀하시었다. 그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져있는가를 깨달은 일군들은 얼굴을 붉혀서 고개를 숙였다.

이윽하여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가운데로로에 의자를 한 뒤줄 더 놓도록 하여야 하겠소나.》

일군들은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 사실 백두산아래 첫등대 건설연대에 이처럼 덩치가 크고 튼튼하게 건설된 몇몇이회관이 있는데 대하여 못내 자부하였고 이러한 회관이 융당한 견을 갖추지던 일군들이 자리를 잡아야 할 가운데로로도 의례히 널찍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누구나 배사롭게 여겨왔던 관람실의 공간을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그냥 스쳐보내지 않으셨던것이다. 바로 그 공간을 일군들의 마음속에 생긴 큰 빈구적으로 여기시였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렇듯 다심히 일깨워주시는것이였다.

인민의 총복이 되어야 할 자기들의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생긴 빈구를 아예 새겨보고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군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서 나오는 과업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일군들은 인민의 일에서야 만족이

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아글라글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마디한마디마다에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정이 흘러넘치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일군들은 생각하였다. 《어디에 가시든 인민에 대한 생각,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꼭 차넘치는 인민의 어머니심정에 비해볼 때 인민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그후 일군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가르침대로 삼지연군문화회관의 가운데로로에 관람실의 자를 더 들여다놓았다. 좌석이 67개나 새로 생겨났다.

67명의 인민들이 더 들어올수 있게 된 관람실을 둘러보시던 일군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허물없이 앉으셨던 그 평범한 좌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어 두었다.

오늘도 삼지연군의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자신들이 한 일을 총화할 때마다 군문화회관의 사연같은 좌석을 생각하며 일군들을 위해 인민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일군들이 있다고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심장에 새기곤 한다. 【조선중앙통신】

특파기자 전철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태양의 그 미소 넘쳐납니다

당 창건 기념일을 맞이한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창건자이며 아버지수령님께서서 우리 땅을 창달한 어머니당, 선군혁명의 새편린 참모부로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으시며 천만군민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시는 금수산태양궁전.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활짝이 활짝이 열리고있다.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불패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이 땅에 세기에 빛날 거창한 기적과 번영을 안아오신 절세위인들이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흠모의 정이 새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은 혁명의 로세대들, 경에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군장병들과 로동계급,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과 우리당의 품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마음껏 펼치는 청소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끓어오르는 경모의 정을 아저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소나.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이십니다.》

해마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을 때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찬양과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절세위인들의 고마운 은덕에 눈물을 적시며 태양의 품에 안긴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위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종비나무와 정향나무, 느리나무와 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들과 파릇파릇한 잔디들도 어서 오라 부르는듯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훌륭하게 꾸러진 풍원에도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의 품을 떠나서, 고마운 어머니당의 품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 긍지 높은 찬양이었다. 물이켜보면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뛰어난 항일의 나날 우리 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토대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험난한 조국방어에서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주체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우리는 모란봉구역 전수동에서 살고있는 박만석로인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어머니 우리 당의 품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온 당원입니다. 10월 10일을 맞으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못 견디게 솟구쳐올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소나.》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우리 당을 영원히 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펼쳐서 구현함으로써 주체혁명

당창건일업을 수행하는 역사적사변을 안아오시었다. 역사의 그날로부터 이 땅에는 얼마나 위대한 전선의 서사가 엮여졌으며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에서는 얼마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는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역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빛나게 계승될수 있소나. 우리 당은 이제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역사의 언덕에서 다시신 그날의 맹세를 지켜 장장 수십성상 탁월한 영도와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신 회관의 위인의 불멸의 영도영적

은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력력히 새겨져 빛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당의 전사, 제자들과 가슴마다에 그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들이 뜨겁게 간직되어있는것인가. 우리는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군관 리승혁동무를 만났다. 《여기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을 때마다 당의 위업을 총대로 받드는 군인의 사명을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이 성스러운 마당에 서니 우리 인민군대는 영원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라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뜻을 가르치신 말을 끝까지 관철해나갈 맹세가 더욱 불타오릅니다.》

흥분으로 젖은 그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경례를 드리기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찾아오는 군인들의 대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추켜드시었던 선군의 기치를 더욱 여세게 틀어쥐시고 우리 조국을 무진막강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사명을 완수하며 충실하게 결사옹위 하야말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미래를 떠받들고있음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혁명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라는것을 우리는 10월의 경에하는 원수님 계시어 태양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리라는것을 더욱 확

신했수 있었소나.》 우리 인민들 누구나 오늘과 같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아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눌수 있도록 해주신 경에하는 원수님,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덕이 사람들의 뼈와 살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우리의 뜻깊은 10월이다. 하기에 이런 뜻깊은 나날과 시간 속에 태양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더욱 역력같이 다져지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주체혁명일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역센 걸음을 내디디는 참된 혁명전사, 제자들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축복이 차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그 언제나 마음 달려오는 우리 인민의 깨끗한 충정에 떠받들려 일어나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곳곳에 일떠서 우리 조국의 위용을 더욱 보란듯이 펼쳐주고있는것인가.

볼수록 미더운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핵은 바로 수령결사옹위에 있으며 이 위대한 힘이야말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미래를 떠받들고있음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혁명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라는것을 우리는 10월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시금 확신했다. 글 및 사진 전광남



당 창건 사적 관 참 관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0일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참관자들은 당창건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든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는데 토대하여 해방직후 당을 창건하시고 혁명의 참모부로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불멸불강의 로고를 바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역사의 나날들을 가슴이 되새기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집무실들과 응접실, 복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회의들이 진행된 회의실을 돌아보면서 건당, 건군, 건국 위업과 제반 민주개혁실시 등 세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원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거룩한 위인상이 어리워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신하시어 계신데 속소와 못가, 영원불멸할 당 건설위업을 만면에 길이 전하는 당창건사적비도 적정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창건하시고 백승의 전통을 마려주시였으며 선군의 기지높이 강성변영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역사임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우리 당을 영원히 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펼쳐서 구현함으로써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신파혁명사적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신파혁명사적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리상원 함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사적관 중앙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신파혁명사적관 일군들과 중앙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신파혁명사적관이 주제63(1974)년 10월 10일에 창립된 후 지난 4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밑에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전선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혁명일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중앙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주제 26(1937)년 여름 신파지역에서 활동하신 사적자료들을 새로 발굴전시하고 군에 새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과 관련한 자료와 사적물로 학술체계와 진정성을 개편하여 사적관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국내지하공작의 나날 혁명활동의 거점으로 리용하신 평선사적관, 선전양부점을 비롯한 사적관물들과 사적지들을 역사주의원칙에서 원상보존관리하고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하여 사적물, 구호문헌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참관직사업을 껴고들어 해강강의를 실행한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전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회관발전소와 백두산선군정년발전소 등 중요대상건설장과 여러 단위에 나가 이동강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대중을 위훈장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신파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중앙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전선의 견결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진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

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며 당의 사상과 영도를 사업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중앙원들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회 결정을 받들고 사상공세의 불길 세계에 퍼져올리며 혁명사적물들에 대한 보존관리를 보다 책임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백두의 나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여있는 귀중한 사적물들이 선군시대의 국보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봉착 혁명사적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정 온 강산에 차넘친다

조선로동당창건 69돐 경축공연

중앙과 지방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들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개척하고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우리 당이 있기에 언제나 백승할것이라는 신심과 락판이 차고넘치었다.

채관봉극장에서 열린 음악회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에서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은 관현악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장군님 생각》, 《발걸음》, 바이올린 2중주 《내 심장의 목소리》 등의 종목을 무대에 펼쳤다.

출연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 주며 선군의 조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하는 위대한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 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었다.

합창 《당은 장군님의 품》, 녀성 4중창 《월영아 세파바다》, 남성 4중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혼성 2중창과 합창 《인민의 환희》 등의 종목을 관람자들에게 하얗고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여 온 잊지 못할 날들을 가슴뜨겁게 들켜보게 하였다.

혁명연극 《말에게서 온 편지》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있었다.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라는 생활의 진리, 사람은 알아서 자주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참된 진리를 새겨주는 연극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69돐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도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기쁨과 광만을 안겨 주었다.

각지에서 어머니당에 드리는 군대와 인민의 영광, 존엄을 고귀히 여기는 당의 령도를 받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노래되어 10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황해북도예술극장 무대에는 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녀성 5중창 《10월입니다》, 혼성 2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남성 5중창 《조선로동당 만세》, 혼성 4중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넘쳐흐르는 공연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 수령복, 당복을 누리는 선군조선의 행운, 민족의 영광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등의 예술인들도 사상에예술성이 높은 공연무대들을 펼쳐서 도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어머니당의 품이 있어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고 확실히 앞날이 약속되어있다는 확신을 깊이 새겨주었다.

천만민민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공연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전투장마당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당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9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0월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창건기념날, 평양체육관, 개성문화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기상을 높이 받들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꽃놀이 대교조의 선봉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넘치고있었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가 10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자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실현시키고 우리 당을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향도하는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강화발전시기인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 나갔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당은 장군님의 품》 등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태도를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도 떠돌고 바다도 메를 조선청년의 기질과 본래를 남김없이 파시해

갈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드높은 열의를 담은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노래들이 무도회장들에 편이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춘의 회열과 광만이 한껏 넘쳐흐르는 속에 《용해야》, 《올라라》, 《노들강변》 등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고 무도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승리는 대를 이어》, 《인민의 환희》로 끝난 무도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뜻깊이 이어갈 계승자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시제자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9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 10월 당창건기념날평양에서 진행되었다.

10월의 환희가 넘쳐흐르는 공연무대에는 소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청춘들이 반들자 우리 당을》, 설화와 녀성 4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녀성 5중창 《그이 따라 나갈 때》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자주시대의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어머니당의 손길아래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무로동력으로 번모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격조높이 구가한 혼성 4중창과 어은금독주 《월영아

세파바다》, 《황금산타령》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남성 4중창 《인민의 환희》, 남성 5중창 《교배》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복, 당복을 노래하며 값높은 삶을 누리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감명 깊게 노래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격진장마다에서 진적의 돌과구를 열어나갈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과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준 공연은 소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로 끝났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와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남포항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10월 남포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앞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집회에서 앞서 그들은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부기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기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을 담은 사자문헌들을 보았다.

집회 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마셜제도국적선박 《세오미터》호, 파나마국적선박 《싸파이》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자

주성이 강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기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조선인민을 혁명하게 령도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인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가는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집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격동적인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진 10월의 명절

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여러 종목 경기들을 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 나라에 드세찬 체육열풍을 일으키며 성황리에 진행된 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열흘간의 하루하루가 다 그러했지만 특히 당창건기념일인 지난

10일에 김일성경기장에서 펼쳐진 광경은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킨 잊지 못할 화폭들이었다.

뜻깊은 10월 10일 김일성경기장은 각지에서 온 인군들과 체육인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응원단들로 초만원 을 이루었다.

경기시작전부터 달아오르던 수

많은 관중의 체육열기는 관람석에서부터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던 미더운 체육인들을 열렬한 박수갈채로 환영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평양시립과 함경북도팀사이의 녀자축구경기로 시작된 이날의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은 어느 것이나 다 불꽃속 격동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나이던 선수들이 당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행복과 기쁨에 넘쳐 드넓은 축구경기장을 흥취무진할 때 한 관중, 관람석에서 남자배구경기가, 또 한쪽에서는 녀자배구경기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전폭

적인 민속놀이인 율놀이경기가 펼쳐져 민족적향취를 더해주었다.

자기 팀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을 달리는 심정으로 응원의 함성을 높여가는 응원단들의 모습, 관람석에서 짙은 관중들의 마음과 마음은 또 얼마나 격정 넘쳐있었었나.

율놀이결승경기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한 라선시팀의 성과 소식이 온 장내에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올랐다.

당의 은총속에 마련된 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 우승을 차지한 흥분된 마음은 언제까지 못하면서 라선시팀의 선수이며 라선시 선봉지구 관공들의 녀맹일군인 강성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 밤과 오늘 새벽은 물론 경기에 출전하기 전까지도 우리 동을 비롯한 온 시의 인군들과 주민들은 우승에 대한 절절한 당부와 고무를 끝없이 보내여왔습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들을 안고 결승경기에서 이겨 시의 영예를 떨쳤으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할수록 좋은것이 율놀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동구민들속에서 율놀이를 적극 장려하여 우수한 민족 전통을 더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율놀이 해도 율놀이와 같은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즐겨 하며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정서와 광

만은 얼마나 아름다웠었나.

수도시민단체 대중체육에서도 언제나 앞장서나갈 불같은 열의속에 남자배구와 녀자배구 경기들에서 편이 우승의 영예를 떨친 평양시 선수들의 신심도 드높았다.

그런가하면 이날 녀자배구경기에 참가하였던 함경북도팀 선수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팀의 조직자인 6번선수는 자기 팀의 대다수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련합기업소에도 드세찬 체육열풍을 일으켰다고 말하였다. 그도그렇듯이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도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벌이며 몸과 마음을 든든히 단련하고 철강제증산업의를 더욱 높였다고 한다.

정면 어느 경기를 보아도,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도 체육열풍으로 달아오르고 그 뜨거운 애국의 열풍속에 대교조불길 이 더욱 활활 일어난지는 내 나라의 막한 승결이 그대로 안겨 오는것만 같았다.

녀자축구경기의 전반전이 끝나 후 휴식시간에 벌어진 공간고이고이러이손목잡고달리기, 물고기코레고달리기경기와 같은 율놀이경기가 펼쳐 평만의 웃음

꽃도 아름다웠고 각 도(직할시)의 체육단선수들의 특색경기장 면들도 볼만 하였다.

한편 온 관람석에 열광적인 응원열기를 지어낸 장애물극복달리기경기는 국방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로동과 국방에서 튼튼히 준비해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잘 보여주었다.

평양시팀이 상대팀을 2:0으로 누르고 녀자축구경기에서 단연 영예의 1위를 쟁취하자 장내에 또다시 환호성이 터졌다.

이 경기에서 제지있는 머리만 기로 평양시팀의 첫 득점을 성공시키었으며 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녀자축구경기 전과정에 모두 10개의 골을 넣은 7번 리창경선수는 담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승리의 금메달로 광복공화국을 빛내이는 모습을 보니 신심이 더해졌습니다. 나도 축구훈련을 더 잘하여 언니처럼 조국을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드리려는 훌륭한 녀자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온 나라에 차넘치는 체육열풍속에 끝없이 밝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로부를 억세게 가다듬는 우리 새 세대들의 힘찬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적

속인 씨름과 바둑당기경기가 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마감을 훌륭히 장식하였다.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나이의 선수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자신만만하게 들배지기를 비롯한 다양한 씨름수법들을 활용하면서 평안북도팀이 우승하는데 적극 기여한 모습도 찬란한 불려일었고 수습팀의 녀자선수들이 한층더욱 어려워 특색있는 전술로 바둑당기결승경기에서 훌륭한 승리를 거둔 평양시팀의 성과도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금도 정쟁히 들려온다.

은 경기장이 열광적인 환호로 끓어번지는 가운데 진행된 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마감에 높이 울려 퍼진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

모든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심장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온 나라에 드세찬 체육열풍을 일으켜주고 격동적인 체육의 황무대까지 펼쳐준 어머니당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비록 막을 내렸지만 10월의 체육열풍은 새로운 비야의 열풍으로 더욱 거세게 일어날것이다.

그와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은 체육강국의 령마루에 환희롭게 솟아올라기만 약속하는 힘으로 비야하는 주체조선은 강성국가승리의 경축포성을 자랑차게 터치며 그 위대한 존엄과 권력을 민방에 끝없이 펼쳐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오철용
사진 본사기자 김철우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향도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메히코에서 사진, 도서전시회와 강연회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 도서전시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여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고전적작품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에는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을 승리적으로 향도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메히코에서, 인디아, 나이지리아에서 집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9월 30일과 10월 2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여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과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당창건 기념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파루기스판공산당 위원장 페. 사브도르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인디아 델리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 비. 씨. 굽다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조선로동당은 그이를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다. 이것은 결코 상징적인것이 아니다.

김정일총비서의 사상과 로선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적 지침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총비서의 사상사상론들은 절대불변의 진리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나이지리아 나이저주정부 상임비서 아부들 말라크는 조선인민은 위대한 당을 받들어 부단히 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앞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이 불멸의 당으로 위용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정은 원수 각 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다.

인민들이 자신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과 같은 당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에카키부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당건설령도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벨스카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로키아연방공산당 연례변경위원회 제1비서는 김일성동지를 당을 창건하신 첫 시기부터 군력강화에 신차적힘을 넣으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

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오늘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모든 분야를 조선식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인도네시아 추닝도 방송 커르 씨파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어온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오늘 조선인민이 행복부흥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선군혁명의 길을 뜻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수없이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보다 큰 승리를 펼쳐갈것이다.

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한데 대하여 령격하였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완전종말》을 떠들며 반사회주의공세를 악랄하게 감행하던 시기 당이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수호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을 위한 투쟁을 이끈것은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새 세대 혁명가들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이이에게서 는 역사적인 카르퇴의에서 《조선혁명기의 진로》라는 연설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로선 등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도록 하시였다.

그러하여 조선에서는 나라가 해방된지 두달도 채 안되어 1945년 10월 10일 조선사회의 강유력한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되게 되었다.

창건후 조선로동당은 주체적로선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새 사회건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건설의 길로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적인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용과 더불어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이 불멸의 당으로 위용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정은 원수 각 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다.

인민들이 자신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과 같은 당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에카키부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당건설령도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벨스카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로키아연방공산당 연례변경위원회 제1비서는 김일성동지를 당을 창건하신 첫 시기부터 군력강화에 신차적힘을 넣으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

토론회, 좌담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로키아, 벨스카,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에서 1일과 2일에 업적토론회가, 로키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에서 2일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로키아사회주의노동당 위원장 로스니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성주석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인민적로선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어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마련하시였다.

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세계 진보적정당들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의 날로 로골화되는 압살책동에서도 사소한 로선상착오도 없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김정은각하를 모시어 조선로동당의 승리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벨스카공산당 외르사외주 집행위원회 위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난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신데 토대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시어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신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강화발전된 우리 당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백승만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 아디파 아리아브 라우린박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지난 8일 남조선집권자 박근혜는 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해문체》를 또 다시 걸고들며 《도발과 유화의 이중적행태》나, 《해개발로기》나 하고 못된 소리를 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할 정적적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개선기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례무도한 행위이다.

지금 온 겨레는 우리 총정치국 장일철의 인련방문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며 지내고있다.

북남관계 개개선기기에 이 분 위기를 잘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쌍방이 함께 노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북과 남은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박근혜는 쌍방이 마주 앉지도 전부터 우리를 걸고드는

이라크 위기는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초래되었다고 인정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라크위기는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초래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2003년 미국이 일인코인이라크전쟁을 전지구적 불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수많은 대항상사부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테러연합》형성의 불순한 목적 폭로

메바는국회 의장 니비호 바베가 최근 의회소식사에서 미국 주도의 《반테러연합》형성의 불순한 목적에 대해 폭로하였다.

《반테러연합》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목적은 수리아의 안정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각인종족과 종교적경향을 띤 4개의 지역으로 분열시키려는데 있다고 그는

미국 내정 간섭으로 초래되었다고 인정

그는 서방의 그릇된 제재책동을 불온적제재책동의 길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란정당의 계획을 지원하고있으며 세계의 환경보호노력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이란인민은 서방의 제재책동을 물리치고 환경보호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 국제개발담당차관 파비우스가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차관총장들을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타인의 동부무사드에 위치한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관하여 성명은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파괴하는 행위로 란언하였다.

프랑스 외무부 국제개발담당차관 파비우스가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차관총장들을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타인의 동부무사드에 위치한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관하여 성명은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파괴하는 행위로 란언하였다.

수출 증가

감보자에서 올해 첫 7개월 동안에 옷과 신발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증가하였다.

9월 25일 이 나라 상업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라발전소건설 계획》

케냐이정부가 최근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라의 동부지역에 있는 석탄매장지부근에 건설되는 발

규탄배격 받는 이스라엘

프랑스정부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성명을 철회할것을 요구한 다음 성명을 강조했다.

한편 팔레스타인이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의 감찰을 종식시킬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하였다.

결의안은 2016년 11월을 이

결정하였다.

신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국제사회에서 강철의 당, 불멸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의 당건설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압하에 있던 시기에 나라와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신 김일성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새 세대 혁명가들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이이에게서 는 역사적인 카르퇴의에서 《조선혁명기의 진로》라는 연설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로선 등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도록 하시였다.

그러하여 조선에서는 나라가 해방된지 두달도 채 안되어 1945년 10월 10일 조선사회의 강유력한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되게 되었다.

창건후 조선로동당은 주체적로선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새 사회건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건설의 길로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적인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용과 더불어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지난 8일 남조선집권자 박근혜는 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해문체》를 또 다시 걸고들며 《도발과 유화의 이중적행태》나, 《해개발로기》나 하고 못된 소리를 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할 정적적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개선기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례무도한 행위이다.

지금 온 겨레는 우리 총정치국 장일철의 인련방문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며 지내고있다.

북남관계 개개선기기에 이 분 위기를 잘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쌍방이 함께 노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북과 남은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박근혜는 쌍방이 마주 앉지도 전부터 우리를 걸고드는

이라크 위기는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초래되었다고 인정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라크위기는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초래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2003년 미국이 일인코인이라크전쟁을 전지구적 불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수많은 대항상사부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테러연합》형성의 불순한 목적 폭로

메바는국회 의장 니비호 바베가 최근 의회소식사에서 미국 주도의 《반테러연합》형성의 불순한 목적에 대해 폭로하였다.

《반테러연합》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목적은 수리아의 안정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각인종족과 종교적경향을 띤 4개의 지역으로 분열시키려는데 있다고 그는

미국 내정 간섭으로 초래되었다고 인정

그는 서방의 그릇된 제재책동을 불온적제재책동의 길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란정당의 계획을 지원하고있으며 세계의 환경보호노력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이란인민은 서방의 제재책동을 물리치고 환경보호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 국제개발담당차관 파비우스가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차관총장들을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타인의 동부무사드에 위치한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관하여 성명은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파괴하는 행위로 란언하였다.

프랑스 외무부 국제개발담당차관 파비우스가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차관총장들을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타인의 동부무사드에 위치한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관하여 성명은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파괴하는 행위로 란언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위성발사 계획

베네수엘라에서 인공지구위성 《쿠르베》호를 새로 제작하여 발사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원격탐사 및 영상촬영, 높은 전송능력을 갖추게 될 이 위성은 3년안에 제작발사될것이라고 한다. 6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수출 증가

감보자에서 올해 첫 7개월 동안에 옷과 신발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증가하였다.

9월 25일 이 나라 상업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라발전소건설 계획》

케냐이정부가 최근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라의 동부지역에 있는 석탄매장지부근에 건설되는 발

프랑스 외무부 국제개발담당차관 파비우스가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차관총장들을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타인의 동부무사드에 위치한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관하여 성명은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파괴하는 행위로 란언하였다.

프랑스 외무부 국제개발담당차관 파비우스가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차관총장들을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타인의 동부무사드에 위치한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관하여 성명은 그것을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파괴하는 행위로 란언하였다.

경제침체와 사회적 혼란 속의 자본주의 나라들

최근 자본주의 나라들의 주요 증진시장은 주시시세가 폭락하여 어수선이 더지고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속에서 이질에 들어와 미국의 뉴욕증권시장에서 주시시세가 대폭 떨어지는데 이어 프랑스와 에스빠나, 일본에서 그것이 각각 2.81%, 3.12%, 2.6%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채무위기가 날로 심화되고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지에 이르고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말경에 벌써 17조USS가 넘는 빚대미수에 올랐으며 일본에서는 올해 6월까지 국가채무가 1 039조 유에 이르렀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액의 93.9%에 달하고있는 형편이다.

3월에 이탈리아의 채무액은 2조 1 200억으로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포르투갈도 2 206억 8 400만 유의 채무를 걸머지고있다.

일본에서는 상반기에 5 073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었으며 도이힐란드에서는 1.4분기에 6 156개의 기업체가 업무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현재 그리스 중소기업체 5개 중 1개가 파산전선에 처해있고 있다.

실업이 엄청난 사회적난문제를 야기하고있다.

이러한 실태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특히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액의 93.9%에 달하고있는 형편이다.

3월에 이탈리아의 채무액은 2조 1 200억으로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포르투갈도 2 206억 8 400만 유의 채무를 걸머지고있다.

일본에서는 상반기에 5 073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었으며 도이힐란드에서는 1.4분기에 6 156개의 기업체가 업무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현재 그리스 중소기업체 5개 중 1개가 파산전선에 처해있고 있다.

실업이 엄청난 사회적난문제를 야기하고있다.

미국과 서방을 비난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9월 25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서방의 《반테러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테러에 대응할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역나라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적방법에 매여달려서는 테러를 막아낼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이란대통령이 4일 이 나라총회의 회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부당한 제재책동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특히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액의 93.9%에 달하고있는 형편이다.

3월에 이탈리아의 채무액은 2조 1 200억으로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포르투갈도 2 206억 8 400만 유의 채무를 걸머지고있다.

일본에서는 상반기에 5 073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었으며 도이힐란드에서는 1.4분기에 6 156개의 기업체가 업무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현재 그리스 중소기업체 5개 중 1개가 파산전선에 처해있고 있다.

실업이 엄청난 사회적난문제를 야기하고있다.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가스배해동맹》

형세는 1990년대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소련의 해체로 가스배해연안에는 새로운 독립한 나라들이 출현하였다. 결과 가스배해의 연안국들은 2개로부터 5개로 늘어났으며 가스배해의 법적지위를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개의 연안국들가운데서 로씨야와 이란은 가스배해를 분할하지 말고 공동으로 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나머지 3개국인 까지호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역을 나란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상반되는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가스배해의 법적지위를 둘러싸고 대립적이었던 연안국들사이의 의견상이를 줄이고 가스배해의 명목분할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전 쉐르만시 가스배해는 소련과 이란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에 의해 그 지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었다. 1921년과 1940년에 두 나라가 조인한 조약에 의해 가스배해의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었던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가스배해는 이란과 소련의 기밀을 단 선박만이 항행할 수 있었다. 가스배해의 지 않았으며 가스배해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첨예한 국제문제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지난 시기 가스배해연안국들이 서로 속기작위를 틈을 타서 서방세력이 간섭해나갔다. 미국은 이 지역문제에 머리를 들지 말기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자기의 리속을 차리는데 유리한 나라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부추김으로써 문제해결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역의 수송문제에 두팔걸고 간섭해나갔던 미국이었다. 가스배해지역에는 이곳의 원유 및 가스를 대외시장에 내갈 수 있는 수송로들이 이미 건설되어있었다. 아제르바이잔의 바푸로부터 로씨야의 노보로씨스크항으로 나가는 원유수송관이 나 로씨야의 흑해해저를 거쳐 투르키에로 나가는 가스수송관이 이리 건설되어있다. 가스배해에서 이란을 거쳐 수송하는 통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미국은 종전의 수송물로를 확대할데 대한 로씨야의 제의를 무시하고 새 수송관건설을 추구하여왔다. 2006년에 미국의 투자에 처음으로 로씨야에 에 두어 아제르바이잔의 소치 바푸로부터 투르키에 항구도시 퀘이

한로 원유를 수송하는 송유관 건설이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다.

《가스배해 두 서방의 여론들은 이것을 두고 서방의 여론들은 《가스배해로써 투르키에를 거쳐 지중해로 나가는 원유수송관 건설의 성과적인 실현은 근 한 세기에 걸치는 가스배해의 원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로씨야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을것이며 이 지역 나라들을 로씨야에 얽매게 하고는 사물을 뒤엎어놓았기라고 하였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통로들을 제쳐놓고 이 새로운 통로계획에 따라본다는 목적지 아니었다는 명백하였다. 에네르지가원천을 확보하여 지역의 배를 채우는 동시에 이전 쉐르만개항과 송유관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넣어 전략적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수립하는데 있는것이다.

이런 수뇌자에서 연안국가수반들은 가스배해의 법적지위문제를 둘러싼 모순과 대립이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반면에 미국과 서방에 간섭의 구실만을 준다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하고 가스배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단을 내리었다.

로씨야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가스배해에서의 자원의 분

《가스배해동맹》

한로 원유를 수송하는 송유관 건설이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다.

《가스배해 두 서방의 여론들은 이것을 두고 서방의 여론들은 《가스배해로써 투르키에를 거쳐 지중해로 나가는 원유수송관 건설의 성과적인 실현은 근 한 세기에 걸치는 가스배해의 원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로씨야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을것이며 이 지역 나라들을 로씨야에 얽매게 하고는 사물을 뒤엎어놓았기라고 하였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통로들을 제쳐놓고 이 새로운 통로계획에 따라본다는 목적지 아니었다는 명백하였다. 에네르지가원천을 확보하여 지역의 배를 채우는 동시에 이전 쉐르만개항과 송유관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넣어 전략적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수립하는데 있는것이다.

이런 수뇌자에서 연안국가수반들은 가스배해의 법적지위문제를 둘러싼 모순과 대립이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반면에 미국과 서방에 간섭의 구실만을 준다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하고 가스배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단을 내리었다.

로씨야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가스배해에서의 자원의 분

결정하였다.

신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국제사회에서 강철의 당, 불멸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의 당건설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압하에 있던 시기에 나라와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신 김일성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새 세대 혁명가들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이이에게서 는 역사적인 카르퇴의에서 《조선혁명기의 진로》라는 연설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로선 등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도록 하시였다.

그러하여 조선에서는 나라가 해방된지 두달도 채 안되어 1945년 10월 10일 조선사회의 강유력한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되게 되었다.

창건후 조선로동당은 주체적로선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새 사회건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건설의 길로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적인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용과 더불어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